



가독

## 2022 ‘청년 사회교리 아카데미’를 수료하며

수료생들



### Q.1 사회교리 Academy로 나의 인식이 전환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하나를 꼽자면 노동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노동이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먹고살 여유가 된다면 굳이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교리 중 들었던 '하느님께서도 노동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여 우리를 만들었기에 노동은 성스러운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노동은 그저 노동일 뿐이라는 저의 인식을 바꿔 주었습니다. (최 레지나/수영)
- 사회교리 수강 전에는 가난한 이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관심과 시선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와 수도공동체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 줄리아/수녀)

### Q.2 기억에 남는 실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부하기 (홍 세실리아/수영, 박 야곱/수영)
- 뉴스를 찾아보고 세상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단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실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 미카엘라/남천)

### Q.3 사회교리 수강 이후 삶의 변화가 있었나요?

- 사회 문제를 불편하고 냉소적으로 보곤 했습니다. 수강 후 교회의 관점으로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 각도로 고민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 바오로/전포)
- 이제 의무가 아님에도 실천사항 했던 것들을 생활 중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삶에 대단한 변화가 있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막 변화의 출발선에 선 기분입니다. (최 미카엘라/남천)

### Q.4 간단한 소감을 작성해 주세요.

- 처음 시작하던 날 참가하게 된 이유를 나눴던 게 생각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지 배우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바람이 너무 잘 이루어진 것 같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유 파비올라/정관)
- 자주 만나고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심과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찾아가는 일이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오 카타리나/남천) 

✝ 이달의 기도 지향 : 인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다시 읽는 「생명의 복음」

이영주 스텔라 수녀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한 해의 끝자락 12월입니다. 올해 있었던 굵직굵직한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문제,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 안락사와 낙태에 관한 끝없는 논쟁, 아동학대, 노동 착취, 산업재해 등등. 가만히 들여다보면 ‘죽음의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나 자신, 또는 자국의 이익만을 쫓으며 다른 이들의 고통에 귀를 막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에 나만의 이익이란 있을 수 없는데도 말이지요. 그 결과는 인류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십여 년 전 반포된 「생명의 복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1995년에 반포된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입니다. 자본주의와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생명이 경시되고 죽음의 문화가 퍼져가는 현실에서, 회칙은 생명의 존엄함을 선포하며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자고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생명이란 무엇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과 그 이면에는 어떤 사고가 숨어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온 신성한 실재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졌으며,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며, 인간은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이를 위해 봉사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점이 생명의 신성함과 불가침성을 뒷받침해줍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자유와 이성, 자율성이 극대화되면서 생명을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배아 연구, 대리모, 낙태, 안락사 등 생명을 이용하거나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고문, 집단 학살, 추방, 노동 착취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비극이 만연해졌습니다. 「생명의 복음」에서는 이를 죽음의 문화가 퍼져간다고 경계하며 그 이면에 있는 사고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연을 포함하여 약한 이들을 착취하고 도구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타인과 공공선을 위해 자유를 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즉, 공공선과 복음적 가치를 위해 비복음적인 가치를 거부할 수 있는 참된 마음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자유이며, 참된 행복, 즉 하느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더 큰 선을 위해 이기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진정한 자유라 하겠습니까.

죽음의 문화는 또한, **힘의 논리**를 앞세웁니다. 무분별한 배아연구나 낙태는 힘의 논리 때문에 생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그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예입니다. 힘의 논리는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생산하는가”하는 것 때문에 존중합니다. 이것이 약자에 대한 강자의 우월성입니다.”(「생명의 복음」, 23항 참조). 힘의 논리에 따르면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뿐 아니라 이민자, 난민, 노동자들 역시 기본적인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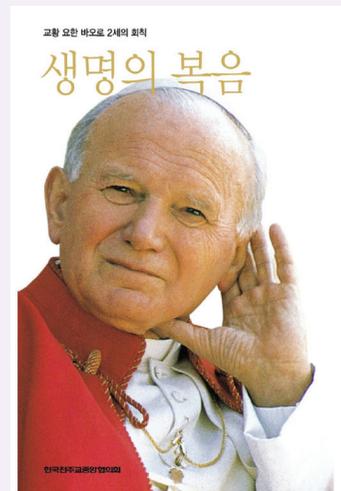
힘의 논리는 효율성, 기능성, 유용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손을 잡습니다. 생명은 존중해야 할 신성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 소유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단순한 ‘사물’로 여겨집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연도 어머니(mater)인 존재에서 ‘물질(matter)’인 존재로 격하되고” 필요에 따라 파괴됩니다(22항). 물질적인 행복만 추구한다면 존재론적 가치는 무의미해집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다고 하지만, 생명에 대한 경시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힘 있는 사람들만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에서는 시편 139편을 인용하면서 “우리 자신과 타인들 안에 관상적인 시각”을 기르자고 촉구합니다(83항).<sup>1)</sup> 또한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의식이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피조물인 인간도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 그저 하나의 도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찬미받으소서」에서는 그 대상을 자연으로까지 확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하느님의 자리에 올려놓

음으로써 자연을 지배하고 죽음의 문화를 초래한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117항 참조). 이러한 교만은 자연뿐 아니라 생명의 영역에도 무분별한 손을 뻗칩니다. 또한 노동의 가치를 격하하여 사람을 하나의 인력으로만 여기고 자연을 “자원”으로만 소비합니다. 존엄성이 사라진 곳에 하느님도 제외된 채 인간과 자연 모두가 파괴되어갑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치에 죽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sup>2)</sup>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존엄함을 다시 새겨봅시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 



1)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조물들은 경이로울 뿐. 제 영혼이 이를 잘 압니다.”(시편 139,14)  
 2) 교종 바오로 6세의 첫 번째 성탄 담화. 「생명의 복음」 83항에서 이를 인용함.

# 검찰공화국 어디로 가나

김희수 변호사 민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2010년에 썼다. 책을 쓴 동기가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다. 사실상의 사법 살인이라는 생각에서 ‘검찰을 이대로 놔둬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 교수 두 명과 함께 책을 썼다.

대통령실과 검찰 심볼을 나란히 놓은 건 행정부 수반과 검찰 권력이 구분이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정권별 사건들로 되짚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 이승만 시대 존재 의미 없고 박정희 정권 땀 ‘꼬봉’

해방 후 제헌헌법에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경찰 5천 명을 다시 쓰면서 반민특위를 해체시켰다. 경찰은 권력의 시녀였고 검찰은 존재 의미가 없었다. 여순사건 땀 양민을 살해한 경찰을 입건한 검사가 좌익으로 몰려 경찰에게 총살당했다.

박정희 정권 땀 중앙정보부가 권력의 시녀역을 하면서 검찰은 ‘꼬봉’이 됐다. 조총련계 자금으로 공산혁명을 꾀했다고 조작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땀 선고 18시간 만에 8명을 사형하곤 고문 자국을 감추기 위해 사체를 불태웠고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도 조작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을 중앙정보부로 돌려보내 가혹행위를 가중시키고 지문 날인을 받아 사건을 처리했다.

## \*\*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녀역 이후 민주화로 최대 수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황 모를 때 검찰이 매일 정보 보고를 올려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됐다.

또 민주화 운동가들의 분신자살이 잇따르던 당시 유서대필 사건에서 검찰은 유서 감정을 허위로 하면서 유죄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북한 경비정들에 끌려갔다 귀국한 어선원들을 간첩으로 몰아갔는데 검찰은 이런 사건들의 법리를 만들었다.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서도 권력지향적 태도를 보였다. 내란죄 등에 대한 고소 고발을 기소유예했고 고소 고발이 계속되자 검찰은 공소권이 없고 성공한 내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자 전부를 잡아들여 기소하면서 역사의 새 전기를 쓴 것처럼 했다.

이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을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면서 자신들의 권한과 힘이 얼마나 센지를 만천하에 과시했다.

6.10 항쟁 등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 정보기관의 불법 통치가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이 합법적 권력으로 등극했고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 \*\*\*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 구속, MB맨 검찰 공화국 초석

검찰이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등장, 불신이 커지자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했지만 사사건건 야당 반대에 부딪혔고 국회에서도 따라주지 못해 끝내 못했다. 검사들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무례한 발언들을 쏟아냈고 '대선 자금 수사'로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구속시켰다.

이명박 정권 맨 노 전대통령 수사를 하루 종일 방송 보도했다. 확정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밝히는 건 피의사실 공표죄인데 검찰은 대통령도 자신들에게 걸리면 끝장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오만함을 보였다. 당시 수사 검사가 전관예우로 거액을 받아 구속된 흥만표,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우병우였다.

KBS 정연주 사장은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됐고 대통령은 직권으로 사장을 직위해제했다. 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지만 무엇도 돌이킬 수 없었다.

### \*\*\*\* 박근혜 정권 후안무치, 되치기, 내로남불 수사

덧글 조작 사건'에서 후안무치함을 보인 검찰은 '노회찬 의원 삼성X파일 사건' 등 진실을 밝히는 대신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한 이를 처벌한 '되치기' 수사도 많이 했다.

우병우 검찰 출석 사진은 그들의 오만함을 가장 잘 보여준다. 자기들과 관련된 건 절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사건 역시 제식구 감싸기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조직적 부패도 많아 흥만표는 전관예우로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300억 원을 벌었다.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사가 공헌해 사람이 죽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도 있었다. 북에서 찍었다는 사진들을 추적하니 조

작된 것이었는데 이때 검사가 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개혁안들을 냈는데 잘 안 됐다.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나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수사의 위법성이나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 \*\*\*\*\* 확대된 검찰 수사권, 헌법적 가치 숙고해야

문재인 정부 때 국회에서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게, 나머지는 경찰에게 주는 법을 어렵게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견제와 균형은 지켜야 될 기본 가치인데 검찰은 국회에서 만든 법조차 무력화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고민해야 한다. 제 1의 가치가 인간 존엄성이다. 세월호 참사 때 법안을 만들면서 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게 됐다. 이태원 참사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경외감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들이 제일 정의롭고 세고 믿을 만하다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검찰이 공화국을 넘어 왕국이나 제국으로 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022년 11월 14일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의 주제강의를 김아영 소피아 정평위원이 요약하였습니다.

## “젊은이여, 손을 뺐어라.”

한상엽 프란치스코 신부 남양산성당

지난 9월 25일 주일 저녁, 우리는 아주 특별한 미사를 봉헌했다. 이름하여, ‘젊은이 미사!’ 이제 남양산에도 소위 말하는 2030 중심의 청년미사가 생긴 것이다. 스무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미사와 이어지는 모임에 함께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은가?

이들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 주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없었거나, 있다손 치더라도 간단간당한 시간에 와서 최대한 제대에서 먼 곳 내지는 어두운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마침성가가 끝남과 동시에 쏠살같이 사라져버리거나, 지나치듯 흘리는 짧은 눈인사가 고작 다였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지금은 제대와 가장 가까운 밝은 자리로 나와 사제와 눈을 맞추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손이 오그라든 그때의 그 사람’(마르 3,1-6)처럼 말이다.

주님께서 건네신 말씀은 딱 두 마디였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그리고 “손을 뺐어라.” 이 말씀대로 하자 그의 손이 다시 성하여져 건강하게 되었는데, 이 젊은이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 손을 뺐은 격이니 앞으로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분명 일어나지 않겠는가? 사실 나는 지금의 좋지 않은 목 상태가 충분히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젊은이 모임을 준비하려 했다. 아무래도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의를 가지고 모인 그들에게 온전한 사목적 돌봄을 주기 위해서는 내 상태가 먼저 온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 다른 의미로,

나 역시 주님께 손을 뺐어야만 했다.

주임 신부님의 후보 공지부터, 매 주일미사 전후로 1층 로비에서 젊은이들을 붙들며 신청서를 받는 청소년분과 위원들, 사무장님은 교적을 통해 본당 내 모든 젊은이를 파악하고, 그렇게 받은 젊은이 명단을 들고 구역 반장님들은 일일이 전화를 돌리시고, 사목회는 모임을 위한 배너 제작과 다과 준비까지...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 당신 손을 뺐어주고 계셨던 것이다.

이제 두 달이 다 되어 간다. 반주도 하고 선창도 하고 거기다 간단한 율동까지, 얼마 전에는 독서 교육도 받아 이제 제대 위에 올라와 독서도 한다. 사뭇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젊은이들을 보며 나 또한 부족한 내 손을 주님께 뺐는 계기를 마련한다. 지금 내 손이 뺐어 있는 그곳은 어디인가?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 여정을 떠나 젊음을 살아낼 용기를 내십시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도 오그라든 우리의 젊은 손을 뺐으라는 말씀이 아니던가?

“젊은이여, 손을 뺐어라!”



## 세례자 요한의 세례 (Battesimo delle turbe) 1517-1520

안드레아 델 사르토 (Andrea del Sarto) 프레스코, 192cm x 206cm,  
스칼쥬 회랑(Chiostro della Scalzo), 세례자 성 요한 규율형제수도원, 피렌체.

고은영 베로니카 미술품 복원가

대림 2주일 복음은 ‘회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1-2)” 회개는 살아오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더 이상 ‘내’가 아닌 새로운 인간, ‘다른 사람 *Alium virum*’ 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면 바닥부터, 내 안부터 ‘달라져야’ 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고자 잠시 머리를 숙이는 일 따윈 허용되지 않는다.

변변한 수도원조차 가지지 못했던 가난한 ‘세례자 성 요한 규율수도회’를 위해 화가는 흙에서 추출한 녹색과 갈색의 단색만을 사용해 자그마한 회랑에 아름다운 벽화 연작을 그렸다. 이 수도회는 실제로 수도사들이 맨발로 십자가 행렬을 했기 때문에 ‘맨발 (Scalzo) 수도회’로 불렸다. 1520년 로마에서는 바티칸을 화려하게 장식한 르네상스 거장들이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델 사르토는 고향에 남아 그가 가졌던 세상에 대한 바른 시선으로 세례자 요한의 생애 12 장면과 믿음, 사랑, 희망, 정의의 의인상을 그려나갔다. 평론가 바자리가 “결점이 없는 화가”라고 기록한 그의 프레스코는 미켈란젤로의 영웅적인 이미지보다는 엄숙하지만 정결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세례자 요한의 섬세하면서도 망설임 없는 손과 얼굴의 선은 부드러우면서 정확하고 유연하면서도 강

하다. 절제된 움직임과 우아한 화면 분할, 무엇보다도 이곳에는 색채의 아름다움을 넘어선 주제에 대한 신중함이 있다. 밝은 광선 아래 고스란히 드러나는 무채색의 인물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모두 ‘세례’에 집중하게 한다.

무릎을 꿇고 가슴에 손을 모은 이는 차가운 물속에 몸을 담그고 떨며 그의 과거에서 벗어나고자 고개를 숙인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는 그런 것이라 말한다. 자신의 과오를 숨김없이 인정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진정한 참회와 사죄없이 ‘유감’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난무하는 회피는 결국 “불타는 쪽정이”가 될 뿐이라 준엄히 꾸짖는다. 🌿



# 생명의 말씀

## - 『디오그네투스에게』: 초기 그리스도교 인권 선언

김현 안셀모 신부 해양사목



“말씀이 사람이 되  
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  
다.”(요한 1,14) 사람이  
되신 말씀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  
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  
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이사  
61,1-2)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세  
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기쁜 소식이 되  
셨습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다.”(口禍之門)라는 사자성어  
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은 ‘말’ 때문에 온 나라가 떠  
들썩합니다. 대통령의 막말로 시작된 말싸움은, 이  
태원 참사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면피성 발언과 누  
리꾼들의 책임질 수 없는 유언비어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말’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  
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  
분이 좋습니다. 말 속에 진심이 들어있고, 희망과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뒤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  
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도 하느님처럼 되

기 위함입니다.”(아타나시우스, 『말씀의 육화론』  
54,3)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씀,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호에서는 디오그네투스라는  
인물에게 그리스도교 진리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편지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편지는 지은이를  
알지 못하는 2세기 호교 교부(Apologetic Fathers)  
가 남긴 문헌으로, ‘초기 그리스도교 인권 선언’으  
로 불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  
씀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본받게 된다는 말에 놀라지 마십시  
오! 그것은 가능한 일이며 또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입  
니다. 이웃을 탄압하며 약한 자를 짓밟고, 재산을 축적  
하며, 아랫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짓은 사람을 행  
복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짓은 하느님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들은 하느님의 위엄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짐을 자기가 대신 지  
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사람,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  
웃이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의 역할을 하  
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을 본받는 이  
들입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Epistula ad Diognetum 126. 

## 제41회 인권 주일, 제12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요약)

##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루카 6,8)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41회 인권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인권 주일을 지내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권이 지닌 고유하고 중요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많은 사람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性), 지역, 종교, 학력, 장애, 재력이나 권력 등의 이유로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배척된 이들은 사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쫓겨난’ 이들,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루카 6,6-10)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를 주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뚫고 나아가 그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루카 6,8)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이지 않던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심으로 회당의 모든 사람이 그를 볼 수 있게 하였고, 그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손을 고쳐 주심으로 그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인권 주일을 맞이하여 특히 배척된 사람들,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변두리에 내몰린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 어쩔 수 없이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해야만 하는 배달기사, 반죽기에 끼어

죽은 청년, 시간당 얼마로 치부되는 요양 보호사, 축제현장에서 죽은 수많은 젊은이들...

국가 공권력과 정치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사회적 조건들을 바꾸려고 최선을 다해야”(「모든 형제들」, 186항) 합니다. “정치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론 조사에서의 지지도 하락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배척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모든 형제들」, 188항)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뚫고, 극심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장벽도 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 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어나 우리 가운데에 서십시오!” 하고 우리의 삶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내몰린 사람을 ‘바라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와 ‘함께함으로써’ 그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인권 회복을 위한 우리의 인간애를 드러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의 하느님의 모습을 되찾아 주는 우리의 신앙 행위입니다. 

2022년 12월 4일 대림 제2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 선 태 주교



담화(전문)



2022사회교리주간 영상

##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과 소식

### +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

11월 14일 아세미(월, 19:30 가톨릭센터 소극장)는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158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된 이번 참사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권력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했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잇단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정평위는 '10.29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날 김희수 변호사를 초대하여 '검찰공화국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현대사를 통해본 검찰 권력의 민낯을 살펴보고 민주주의에 근거한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 + 2022 사회교리학교 하반기-주제강좌『모든 형제들』길라잡이

11월 9일-16일(2주간 수요일 19:00 가톨릭센터 교육실)에서 2022 사회교리학교 하반기-주제강좌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길라잡이'를 박동호 신부의 강의로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형제들』의 핵심인 형제애(관계)와 인간 존엄성, 사회적 우애와 인간 공동체에 대하여 각 2시간씩 진행한 이번 강의에 수도자와 평신도 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교구 '젊은이의 날' 부스 운영

정의평화위원회(청년분과)는 11월 19일(토, 12:00) 남천성당에서 열린 교구 젊은이의 날 행사에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회교리의 주요원리와 주제별(생명·인권, 노동, 환경, 정치, 경제, 국제공동체·평화) 사진을 전시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의평화위원회를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022 청년 사회교리 아카데미' 수료생과 자원봉사들이 수고해주었습니다.



### + 통일부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 규탄 기자회견

11월 15일(화, 11:00),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통일부 권영세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에 대하여 통일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고 남북충돌을 조장하는 통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정권의 행동을 멈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2차 공판 준비기일

11월 23일(수, 14:00)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책임자 중 7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관련, 유죄입증을 위한 증인신문이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공판에 앞서 대책위와 중대 재해없는부산운동본부는 12:30부터 법원 앞에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

†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요한 1,4)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존엄함을 다시 새겨봅니다. 어둠 속에서  
 빛 되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정의평화위원회 -



###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18일~11월 15일)

강영미 강운자 강정웅신부 고은영 권용대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 김광숙 김선영 김인한신부 김종경 김진호  
 신부 김흥기 류창훈신부 류형숙 맹정은 박위옥 박종민신부 배미희 법무법인민심 법무법인부산 서경혜 손석  
 호 신정금 심재영 아리 우무섭 유상우신부 유한이 윤영훈 윤용웅 이미영 이봉룡 이성애 이소라 이영복 이우  
 형 이윤호 이정기 이형규신부 장원창 장은경 전나미 전동묵신부 전윤희 전태일 정성호신부 정종태 정호신부  
 조계한 조동기 조영심 주님의축복을 차광준신부 최우인 최재경 최혁신부 최현욱신부 하민진 하희설 허재현  
 황수엽 황진 익명 | 원고 후원 | 고은영 김현신부 차광준신부 최윤호신부

## 정의평화위원회를 후원(자동이체 신청)해주십시오.

### 정의평화위원회 후원계좌

- 농협 301-0465-9508-21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 부산은행 113-2000-8639-05

>> 보내주신 후원금은 정의평화위원회의 소중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 정의평화위원회에 후원인 가운데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이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십시오. ☎051-465-9508

## † 정의평화위원회는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서한에 근거하여 하느님 백성들이 오늘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깨닫고 가난한 나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제적인 사회정의를 권장하기 위한 교회기구로 설립  
 되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복음과 사회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 존엄성과 창조질서 보전,  
 생명존중과 정의·평화 구현을 위하여 힘씁니다.

2022 12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자본 '론스타 사태'



**일 시** 2022. 12. 12. 월요일 / 19:30

**장 소** 가톨릭센터 소극장



## 강 사 이종태 기자

10년 동안 론스타 사태를 추적 취재한 시사인 선임기자  
『ISDS, 넌 누구냐 론스타와 엘리엇은 어떻게 수조 원을 청구할 수 있었나』 공저자



###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51-465-9508 주소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71 가톨릭센터 5층

이메일 [busanjustice@naver.com](mailto:busanjustice@naver.com) 홈페이지 [busanjustice.pbcbs.co.kr](http://busanjustice.pbcbs.co.kr)